

신년대담 2013 정치기상도와 새 정부의 과제 - 박상철·목진휴 교수

“박근혜 정부 ‘민생’에서 출발해야 사회통합·정치쇄신 가능”

대담=박지경기자 jkpark@

지난해 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는 야권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외형적으로는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는 일찍이 선을 긋고 나선 상태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 전반에서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일보는 순천 출신인 박상철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 경남 마산 출신인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부)와 함께 2013년 정치기상도를 전망하고 새 정부의 과제를 살펴봤다. 대담은 지난 27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박상철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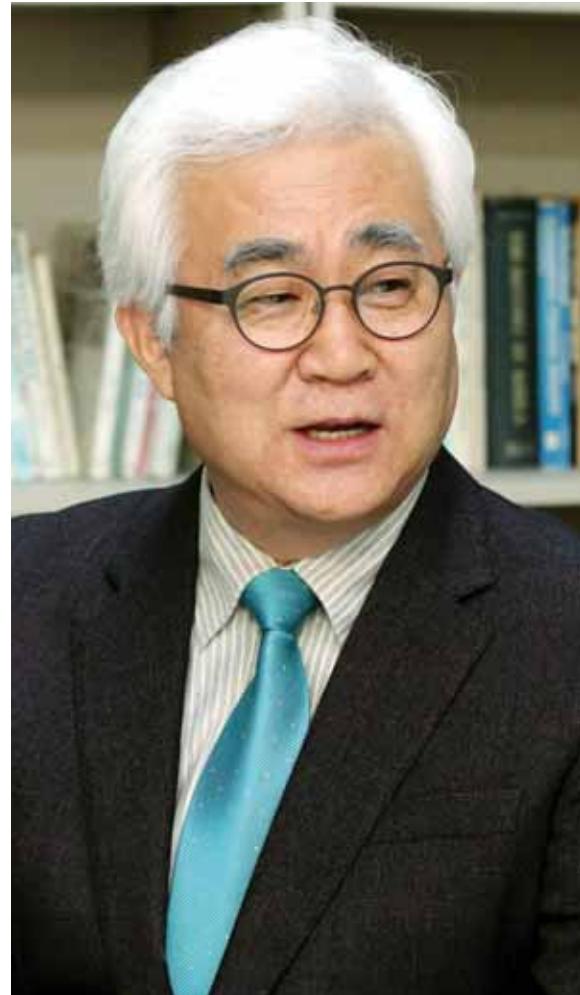
-사회=우선 18대 대선 결과를 평가·분석해보자.

▲목진휴 교수(이하 목)=이번 대선은 예상과 달랐다. 이념 대결, 박빙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또 야권 단일화가 완벽하게 단결을 이끌지 못한 반면 보수는 단결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수도권에서 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40~50대의 지지는 박 당선인이 잘 해서 한 것이 아니다. 50대는 10년 전에 40대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박 당선인이 잘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집단이다.

▲박상철 교수(이하 박)=맞는 말이다. 박 당선인이 이런 것은 50대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야권을 지원할 줄 알았던 수도권 중도부동층이 스윙보터가 돼서 ‘박근혜’ 지지로 돌아섰다. 이번 선거에선 세대·이념 간 갈등이 나타났다. 그것을 부추겨서 ‘52대 48’로(득표율이) 형성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못해서 짚은 세대에 의한 미래지향적 투표가 아니고 과거지향적 투표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간 4~5%포인트의 스윙보터는 가치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사회=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 과제를 살펴보자.

▲목=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세대간 갈등 해소와 경제민주화 등 과제가 있지만 민생이 중요하다. 사회통합도 민생만 해결되면 부



목 진 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경남 마산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정책학 박사 ▲한국정책학회 회장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등 저서 다수



박 상 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순천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한국정치법학론’ 등 저서 다수

차적인 것이다. 민생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다. 우선, 양극화 문제다. 이것도 두 측면이 있다. 실질적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인식의 양극화가 있다. 우리는 두 개 모두 문제다. 무엇을 먼저 풀지 다음 정부가 지혜를 짜야한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 문제다. 이것도 실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인식의 문제,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정책이 따라나오면 된다.

▲박=새 정부의 키워드로 민생과 통합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생 정부를 해야 한다. 통합하자면서 지역 간 통합만 이야기 하면 번진수가 틀린 것이다. 선거 결과는 지역편중으로 당을 운영하다 보니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했다. 정치생태계를 (대통령이) 막지 말아야 한다.

▲목=검찰개혁과 고위직 비리 문제는 문 후보 공약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는 수용해 주는 것이 정치쇄신 뿐 아니라 통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또 정치쇄신에 애당을 동참시키는 고리가 된다. 그런데 나는 박 당선인이 정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 교수와 제가 정치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화해·타협·결충 등으로 모두가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있어야 정책이 가능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 할까.

▲목=통합도 민생으로 접근해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통합을

찾아야 한다. 통합을 위해 호남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정 지역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균형 감각을 갖춘 전문성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된다.

▲박=통합은 말로만 하는 것도, 가치만도 아니다. 실제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전문적,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또 이념의 경우 보수 인사를 써서 진보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계층간 갈등의 경우,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통합은 지역·이념·계층으로 나눠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목=미국의 균등고용기회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민생이다. 지역문제도 그렇다. 호남이 왜 영남을

박 “대통령은 정치 손떼고 정책에 몰두를”

목 “균형감각·전문성 갖춘 인사 등용해야”

박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목 “지역 몰표 호남에서부터 깨고 나와야”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된 광주일보 신년대담에 참석한 목진휴(왼쪽) 국민대 교수와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새 정부의 과제와 올해 정치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선된 줄 알았다. 그래서 과감히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등 공격적 정책을 펴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거부했다. 지역균등 문제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회=야권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계개편을 예상하기도 한다. 2013년 정

에 좌파 편협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도 쪽으로 나가면 야권이 개편될 것이다. 그동안 주도했던 친노가 중심이 아니라 당권에서 소외됐던 세력이 나오면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이 넓어진다.

-사회=이 같은 변화 속에 광주·전남 정치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박=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을 평면적으로 대구·경북과 비교하면 안 된다. 호남은 현대 한국 저항정치의 발원지다. 이번에 광주·전남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줘서 균형이 이뤄진 것이다. 호남의 문 후보 지지는 지역적 성향이 아니라 정권교체의 열원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한 정치적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그것에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목=지난 2007년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91% 지지를 받은 것을 보면 다르게 생각된다. 호남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다. 종도부동층이 ‘박근혜’로 간 것은 종도층이 갈 수 있는 정치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특히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당이다. 진보정당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종도개혁정당 공간이 탄생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목=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상에 가까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고칠 수 없다. 다만, 하루 아침에 되도록 하지 말자. 또 지역균형발전은 문화에서 이뤄져야 한다. 일하는 곳이 사는 곳이 되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자녀가 있는 삶’을 만들려면 문화가 있어야 한다.

▲박=너무 폭가적 이야기다. 지역균형 문제는 통합의 핵심이고 대선 때마다 중요한 아젠다였다.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이겼지만 이명박정부가 될 때 수도권 중심의 정반대 입장에 섰으며 그걸로 당

치권 변화 전망은.

▲박=‘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이다. 종도부동층이 ‘박근혜’로 간 것은 종도층이 갈 수 있는 정치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사회=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상에 가까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고칠 수 없다. 다만, 하루 아침에 되도록 하지 말자. 또 지역균형발전은 문화에서 이뤄져야 한다. 일하는 곳이 사는 곳이 되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자녀가 있는 삶’을 만들려면 문화가 있어야 한다.

▲박=너무 폭가적 이야기다. 지역균형 문제는 통합의 핵심이고 대선 때마다 중요한 아젠다였다.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이겼지만 이명박정부가 될 때 수도권 중심의 정반대 입장에 섰으며 그걸로 당

에도 기회는 희박하다.

▲박=마음은 손학규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즉, 손전 대표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큰 변신을 할 수 있다. 종도를 가장 잘 께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손전 대표의) 힘은 ‘박근혜’보다 훨씬 강했다. 지금까지 모습을 재현하면 5년 후에도 기회는 희박하다.

▲목=야당은 지나치게 좌클릭 된 이념적 스펙트럼을 재고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세민·증산층 정책을 펴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런데 이번

▲박=호남은 정권교체를 원원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대구·경북의 몰표와 비교하면 안 된다.

▲목=호남의 투표를 저항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빨리 벗어나야 한다.

▲박=대구·경북도 깨어나야 한다. 대구·경북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몰표가 나온 것은 권력을 찾아가겠다는 지역주의이다. 호남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목=5·18과 광주학생운동 등 호남의 저항 역사ς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호남에서부터 깨고 나와야 한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名山/名海/名木/名水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특별한 온천여행****치유의 땅 전라남도**

인체에 보양 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음이온이 풍부한 남도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겨울을 즐기십시오!

전라남도 주요 온천의 성분과 효능

온천명	전화(061)	주요성분	효능·효과
순천낙안온천	753-0036	게르마늄, 보론	항암작용, 면역조절 능력 향상
담양리조트	380-5111	구리, 리튬	단백질 합성, 진정작용
지리산온천랜드	780-7800	보론, 망간	황산화, 신진대사 촉진
화순아쿠아나	372-8000	리튬, 보론	성인병 예방, 생식기능 활성화, 심장강화
도곡가족스파랜드	374-7600	아연, 리튬	진정작용, 피부미용
월출산온천호텔	473-6311	철, 아연	헤모글로빈 생성, 효소 작용
영광해수온천랜드	535-9988	칼륨, 나트륨	피부미용, 신경통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chorea.com) 축제/이벤트에서 할인권을 다운 받으세요!